

'새해 문답 전야제' 지적 유희를 즐겨라



"당신이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006년 새해를 코앞에 둔 2005년 12월31일, 닫혔던 문이 열리고 과학자들에게 제시된 물음 하나가 떴다.
그러고는 과학자들이 내놓는 '위험한 생각들'의 상상력이 물음과 함께 막힘없이 쏟아졌다. 몇 세대가 지나면 가상현실이 완전한 현실처럼 자연스런 일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지구 생명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외톨이일지 모른다는 생각, 또 어쩌면 우리의 감수성은 박테리아 세포에서 기원했을 거라는 생각, 또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이 자신을 인식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플루토늄을 다 이해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신부른 생각 등등...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선문선답형 답들도 눈에 띈다. 이듬하여 '세계물음센터'가 해마다 뽑은 물음에 대해 과학자들이 답글을 내놓고, 그것을 인터넷(edge.org)에 비공개로 모아두었다가 새해 하루 전날에 공개하는 '올해의 문답' 지식 이벤트다.

세계물음센터 해마다 문답잔치 물음 던지고 지성들 답변 모아 새해 전날 공개... 올해 10번째 과학·인문의 전통지식 틀 깨고 담은 생산 사고의 지평 확장 제3문화의 물결



세계 지식의 끝(에지)에 다가서기 위해, '두 문화'로 단절된 과학과 인문의 전통지식을 넘어서자는 취지로 '에지재단'을 세워 해마다 문답잔치를 벌이는 존 브로크먼.

Q. 당신이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 있다면?

브라이언 그린(이론물리학, <엘리펀트 유니버스>·<우주의 구조>(승산))= 여러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생각, 우리는 '우주들'(multiverse)이라 불리는, 광대한 우주(universe)의 집합 가운데 하나일 뿐일지 모른다는 생각.
리처드 도킨스(생물학, <이기적 유전자>(음유문학사)·<조상 이야기>(까치))= 차가 고장나면 차를 타는 것처럼 잘못된 비난과 책임 덮어씌우기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더 진실에 가깝게 분석하는 일을 그만두고 지름길로 가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의도적 허구라는 게 나의 위험한 생각이다.
로버트 브로크먼(로봇공학, <로봇 만들기>(바다출판사))=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비생명체가 생명체로 바뀌는 자발적 변형이 극히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이 (지구에서) 단 한번 일어났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년 안에 그것이 매우 확률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여러 증거들을 얻는다면 어찌될까. 우리는 우주에

이 답글들의 발신자는 국내에도 이름이 꽤 알려진 미국의 쟁쟁한 과학자 110여명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총·군·쇠>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엘리펀트 유니버스>의 브라이언 그린, <E=mc²>과 아인슈타인)의 제레미 빈스타인처럼 물리학, 생물학, 로봇공학, 심리학,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스트셀러 저술가들이기도 하다. 인간 유전체의 열기 서열을 해독하고 인공 바이러스 생명체를 만들었던 크레이그 벤터도 포함됐다.
이 문답 잔치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올해 10번째로, 그동안 새해 벽두 때마다 미국·유럽 언론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7년부터 이 행사를 이끌어 온 미국인 존 브로크먼(65)은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지난해 문답은 미국 <뉴욕 타임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을 비롯해 미국·유럽의 여러 언론들이 문답을 지면에 실어 크게 소개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한 2006 문답에도 언론의 큰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당신이 참이라고는 믿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서 완전히 외톨이 생명체일까.
다니엘 데넷(과학철학, <다윈의 위험한 생각>)= 우리는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하거나 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한다면, 우리는 정보 과식에 의해 심리적으로 압도돼 희생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정보 과잉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사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조들과는 아주 아주 다른 존재가 돼 있을 것이다.
로렌스 크라우스(물리학, <외로운 산소 원자의 여행>(이지북))= 세계는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
제레미 빈스타인(물리학, <E=mc²>과 아인슈타인(바다)·<허클러의 우라늄 클럽>)= 가장 위험한 생각은 우리가 플루토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왜 작용하며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한한 미래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에른스트 헤켈(신경과학, <마인드워

계의 과학자들과 사상가들로 이뤄지는 제3문화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고 우리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전통 지식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과 인문이 어우러지는 제3문화가 가능해진 것은 현대 과학에서 진화생물학, 유전학, 컴퓨터과학, 신경과학, 물리학 등이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우주·인간 등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출판인 브로크먼의 자산은 1980년 대부터 우연하게 시작해 전문적 직업으로 삼은 과학도서 기획과 저작권 중개를 하며 자신과 함께 성장해온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과 주고받으며 키워온 제3의 사고방식들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을 인용해 "(브로크먼의) 에지재단은 과학자를 위한, 그리고 과학에 관심을 둔 지식인을 위한 온라인 살롱"이며, "존 브로크먼은 가장 탈날 만한 (저명 과학자들의) 주소록을 지니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과학도서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를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브로크먼은 또 "지식의 편집자" "지식의

2006 올해의 문답 (자료: 에지재단 edge.org)

크)= 과학에 대한 나의 믿음이 위험한 생각이다. 나는 과학 활동과 결과를 기본적으로 믿지만, 거기에 실험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세라 터클(심리학, <스크린 위의 삶>(민음사))= 컴퓨터 문화 안에서 살며 몇 세대 지나면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진정성은 가치를 잃어 한 시대의 흔적으로 남는다.
하워드 가드너(심리학, <재인정 마인드>(재민)·<다중지능>(김영사))= 나의 위험한 생각은 (인간의) 도덕 정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 즉 권력이나 추종적 만족, 적의 결멸 같은 다른 동기들에 의해 도덕정신이 동원되거나 압도될 수 있다는 것.
미하이 직생트미하이(심리학, <몰입의 즐거움>(해냄)·<플로>(한울림))= 경쟁정경이 다른 어떤 가치에 앞서 자유시장을 가능케해왔으며 지니고 있다는 생각, 그게 위험한 것은 자유시장이 일부엔 혜택을 주지만 대다수엔 대가를 치

르도록 요구하는 지식적이고 정치적인 사기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핑커(심리학, <빈 서판- 인간은 본성을 타고나는가>(사이언스북스))= 평균 능력과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집단마다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
존 앨런 파울로스(수학, <수학자, 증권시장에 가다>(까치)·<수학 그리고 유머>(경문사))= '초자연적 존재는 있을까' 하는 의문은 진부하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는 존재할까'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어떤 이들을 지닌 약간 동일한 실체, 그 이상의 어떤 존재일까.
린 막글리스(생물학, <생명이란 무엇인가>(지호))= 세포를 이용해 박테리아는 먹이를 향해 헤엄치고 유해한 가스를 피해 헤엄친다. 뜨거움을 피하고 불빛을 쫓는다. 그래서 우리 감수성은 박테리아 조상의 감각 심도에서 직접 진화했다는 생각, 그래서 박테리아는 우리의 친구나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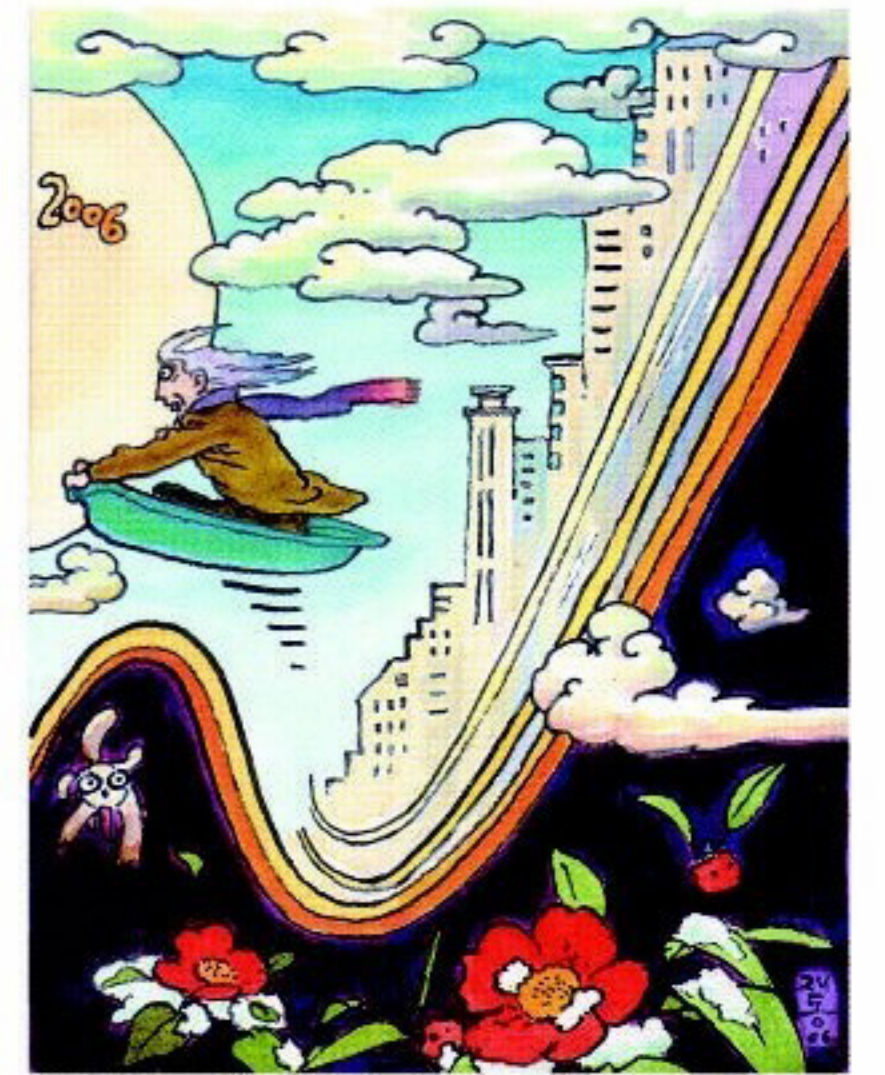
세월 너무 잘 간다

내 기억에 가장 길었던 해는 7살에서 8살까지였는가, 8살에서 9살까지였는가. 압론 고무신 7문 반에서 8문 신을 때까지였는데 그때가 시간이 가장 안 갔던 때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시간이 잘 갔다.(물론 군에 있을 때는 빼고) 그러고는 세월이 점점 잘 가기 시작하는데 이젠 뭐 아주 검증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작년은 정말 정신없이 빨리 지나갔다. 봄인가 싶더니 가을이고 가을인가 싶더니 해가 바뀐다.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잘 가는 것일까? 몸이 커져서 그런 것일까? 심장이 천천히 뛰어서 그런 것일까? (하루살이 같은 것은 빨리 뛰니까 시간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살기가 편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난 시간의 속도에 대해 이런 공식을 만들어 보는데

$$\text{시간속도감} = 1 \text{분간 심장 박동수} \times \text{행복지수} \times \text{나이의 제곱} \times \dots$$

그런데 또 새해가 되니 새로 받은 한아름 시간이 또 소중한 기대가 된다. 올해는 더욱 건강을 챙기고 미친년 날뽀뽀 말고 규모있게 생활하고 절도 좀 들고 찬찬히 일을 해야겠다.

다들 눈속에 핀 동백 같은 기쁨을 품은 아름다운 한해가 되시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애니메이션, 전 한겨레 만평 화백